



독성 · 잔류 · 생물활성팀 구성 종합연구소로 거듭날 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신고증,
한국산업기술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부여 받아

(주)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소장 이해근)는 1996년 11월 농약관리위원회 독성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주축이되어, 농약안전성연구,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분석, 안전성평가자료생산, 농·축산물 및 환경 중 잔류농약 등의 유해물질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농촌진흥청 소속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그 이후 2001년 주식회사로 변모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순수 민간시험연구기관으로써 15년의 역사를 가진 농약관련 Total Service를 제공하는 시험기관이다.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는 1999년 1월 민간연구기관으로서 처음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독성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 그 이듬해인 2000년 9월 농약잔류성시험기관, 2006년 5월 미생물농약시험 및 독성시험, 2007년 3월 이화학분석,



약효·약해시험 및 꿀벌독성시험을 지정받았다.

사단법인으로 출범당시에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등지를 틀었었고, 2001년 5월 현재의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로 이전했다. 감곡에 위치한 연구소는 7,920m²(2,400여평)의 부지에 연구동과 비닐하우스 등의 연구시설과 농약잔류 분석용 GC, LC 등의 기본 장비와 GC/MS, LC/MS/MS 등 고가의 정밀분석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박사 4명을 비롯한 연구인력 17명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 외 연구소 인근에 밭 1,000m²(300여평)과 논 3,300m²(1,000평)을 구입하여 시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소가 감곡IC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인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편리하고 과수류를 비롯한 채소류 등 시험포장 구입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조직 확대·개편 Total Service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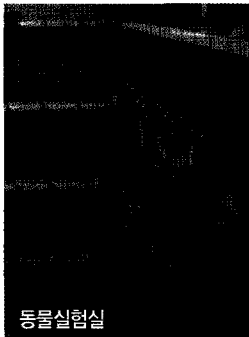
또한 금년에는 연구소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기존의 독성팀과 잔류팀에 더하여 생물활성팀을 구성, 이 분야의 전문가 연구원 3명을 충원하여 명실상부한 종합연구소로 발전할 장기

적인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는 그 동안 연구기반 조성에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인력을 보강하는 등 연구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이 분야의 시험연구사업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발주하는 국책연구사업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해마다 3~4건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그 예로서 2005년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과제인 '식품원료용 수입생약재 중금속 모니터링'을 수행했으며, 2008~2010년에는 농촌진흥청의 FTA 대응과제인 '인삼 수확후 안전관리기술개발 및 실용화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2010년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IPET)과제인 '수출단감의 농약안전성연구'와 농촌진흥청 과제인 '소면적재배작물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적용작물 그룹화 연구'에도 참여했다. 2007년도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역과제인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설정연구'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농약 독성 평가분야에 일인자로



동물실험실



경구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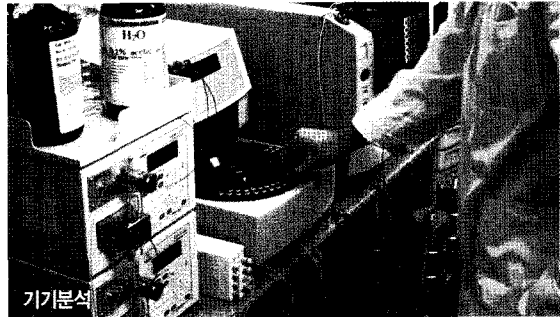
안점막시험



농축기



여과기



기기분석

정평이 나 있는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의 이혜근 소장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에 대해 “각자의 전공 분야 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련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계발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고객과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정보교환이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시험결과를 고객이 필요한 시기에 생산하여 제공할 수가 있다”며 Total Service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소장 집무실의 한쪽 벽면에는 ‘이런 자세가 바람직 합니다’ 라는 8가지 교훈 액자가 걸려져 있다. 연구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마다 8가지 교훈을 열거한다는 이 소장은 “첫째, 할 수 있습니다(긍정적 자세), 둘째, 제가 하겠습니다(능동적 자세), 셋째, 무엇이든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적극적 자세), 넷째, 기꺼이 해 드리겠습니다(헌신적 자세), 다섯째, 잘못된 것은 즉시 고치겠습니다(검허한 자세), 여섯째, 참 좋은 말씀입니다(수용적 자세), 일곱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협조적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째, 대단히 고맙습니다(감사의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주요 계획에 대해 이 소장은 “우리 연구소가 올해에는 환경생태독성 GLP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험연구동과 생활관 신축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바쁜 한해가 될 것이다”라며 “철저한 준비는 좋은 결과를 얻는 밑거름이지만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므로 연구원 전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분발함으로써 연구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㉞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 이해근 소장

2012년, 환경생태독성 GLP인증기관 지정 목표



■ 국내 민간연구소 최초로 농약독성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회고와 가장 큰 연구성과를 꼽으신다면 무엇이십니까?

충북 음성으로 이전한 초창기에는 시험연구수행에 기본이 되는 연구인력과 분석장비, 시설 등의 부족으로 연구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물보호협회와 농약업계의 관심과 배려로 힘든 난관을 잘 극복했습니다. 지난 15년동안 연구기반조성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농약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민간기관으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신고증을, 한국산업기술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받은 점을 가장 큰 성과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또한 연구성과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나 신규농약 등록대행 용역을 수주하여 3년에 걸쳐 노력한 결과 2010년 1월에 성공적으로 신규농약 1품목을 등록한 실적이 있습니다.

■ 2012년부터 농약독성시험성적서는 모두 GLP인증기관의 자료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GLP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사항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인축독성분야에 GLP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기조화 장치를 비롯한 완벽한 시설과 장비,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등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환경생태독성시험분야는 GLP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시험기관이 적고, 특히 농약의 환경독성시험을 원활하게 수행할 시험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므로 우리 연구소는 내년도를 목표로 GLP지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험연구동(363㎡ 규모 2층 건물)과 생활관 신축을 위한 설계가 완성단계에 있으며 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나오는 즉시 공사를 착수(5월 중순 예상)하여 금년 11월 중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GLP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SOP 작성, 연구인력 교육프로그램 작성 및 교육, GLP인증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소비자들은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 있어 연구책임자로서 인식전환의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농약은 유익성과 유해성이 둘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스컴들은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맹목적으로 친환경농산물만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국민 홍보와 함께 소비자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농약의 역할 및 필요성,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제고시켜 소비자의 인식전환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부나 작물보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보다 내실있는 준비와 실천이 뒷받침되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